

철학사

75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그는 1912년에 영국에서 유학했고, 비록 약 20년 동안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그곳에 머물렀지만, 그의 철학적 경력은 본질적으로 영국에서 보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비트겐슈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버트런드 러셀에 대해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러셀은 19세기 경험주의자들, 특히 존 스튜어트 밀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19세기 경험주의자들, 특히 객관적 경험적 과학 지식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가설연역적 방법, 즉 과학적 설명으로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일반 가설을 전제로 하는 연역적 체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연역법은 러셀의 논리적 원자론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논리적 구성 요소로 분석하고, 그 논리적 구성 요소들을 연역적 체계로 조직화하여, 그에 필요한 전제들을 가설로 도출하려는 그의 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설연역법이며, 물론 이 과학적 방법의 보편적 확장입니다. 우리는 러셀이 이 방법을 모든 철학, 모든 인간 지식, 모든 과학의 방법으로 삼고자 했던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19세기 철학이 20세기 초 러셀의 사상으로 계승된 흐름은 과학적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는, 소위 과학 주의 의 한 형태를 띠다. 바로 그런 종류의 과학 주의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트겐슈타인, 특히 초기 비트겐슈타인, 즉 『논리철학논고』를 쓴 비트겐슈타인에게서 드러난다 .

후기 비트겐슈타인, 특히 그의 저서 『철학적 탐구』로 대표되는 그의 사상은 이전과는 다르며,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점에서 러셀의 사상을 따르고 있으며, 1930년대와 40년대의 논리실증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J 에이어가 대표하는 입장도 이와 유사하지만, 그는 과학과 가설연역적 방법론에 대한 의존도를 다소 완화했습니다.

언급 하고 싶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의 이론 체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리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러셀이 『논리철학논고』의 서문을 썼다는 것 입니다 .

여부와는 상관없이, 러셀의 서문은 비트겐슈타인이 하고 있는 일이 러셀 자신이 『논리적 원자론』에서 주장했던 바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러셀이 서문에서 실제로 말하는 것은 이 책이 단어와 사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전통 철학이 무지와 언어의 오용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실증주의자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초기와 후기 모두에 흐르는 주제이며, 러셀 역시 분명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러셀의 저서 제목이 『신비주의와 논리』였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책에서 그는 관념론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러셀은 언어의 오용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상적인 언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언어도 아니고, 평범한 언어도 아닌, 이상적인 언어. 모든 이름, 모든 명사가 오직 하나의 사실만을 지칭하여 어떤 단어도 두 가지 다른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없는 언어. 모호함을 없애고, 이중 지칭을 없애는 언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함축적 의미를 제거해야 합니다. 원자적 사실들이 원자적 명제로 유사하게 설명되는 엄격하게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러셀의 말을 기억하시죠?

러셀은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한번 살펴봅시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책 서문에서 이 책이 바로 자신이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철학적 문제들을 다룹니다. 읽으면서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자는 이 책이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이유는 우리 언어의 논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언어의 논리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언어의 논리'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분명히 연역적 삼단논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언어의 논리가 아니니까요. 귀납적 추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언어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는 언어의 논리적 구조, 즉 언어가 가진 논리적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주어-술어 형식이 그렇습니다. 주어-술어 형식의 명제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알겠죠?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단어는 기호이자 이름일 뿐, 반드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갈색", "집" 같은 몇 가지 단어만 말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의 문제들이 오해받고, 심지어 반대에 부딪히는 이유는 언어의 논리, 즉 언어의 논리적 사용법이 오해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 전체의 핵심은 다음 말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시 이 말을 되풀이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으로 넘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목적은 언어가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규정하고 언어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언어의 논리에 관한 책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제가 드린 개요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열의 숫자는 본문의 단락 번호입니다.

그의 첫 번째 문장은 1이고, 다음은 1.1입니다. 타이피스트가 1.1 대신 1-1이라고 입력한 것이죠. 흔치 않은 형식이라 오해가 생긴 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런 번호로 단락 전체가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장 하나만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글을 쓰는 방식뿐 아니라 가르치는 방식도 반영하는 듯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강의에 등록한 학생들을 추려내어 자신이 원하는 학생 여섯 명 정도만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케임브리지에 있는 그의 방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교수들이 개인 숙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방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는 습관적으로 딱딱한 등받이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팔을 의자 앞쪽에 올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러다가 몇 마디 말을 꺼내면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가 주기를 기대했는데, 종종 데이비드 같은 사람이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며 긴 침묵을 지키곤 했다. 이 불가사의한 인물과 그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는 온갖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해 보라.

그게 전부입니다. 세상은 사물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의 총체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구분점이 생겼습니다.

사실과 사물 사이에서, 그는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걸까요? 사실이란 어떤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분자 수준의 사실도 있을 수 있어요.

원자 수준의 사실도 있을 수 있어요. 리셀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자 수준의 사실도 있을 수 있고요.

원자적인 사실들이 존재할 수 있다. 사실이란 사물의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물의 상태는 사물이나 대상의 조합이다.

그러니까 사물은 단순히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들일 뿐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의 요점은 단어가 사물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단어는 사물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단어들이 사물의 이름을 짓는 거죠. 단어는, 아니, 다시 말해 사물은 상황의 구성 요소예요.

사실은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언어의 혼란과 관련된 중요한 점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다른 사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시 중 하나는 "초록색은 초록색이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녹색은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를 윌리엄 그린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녹색은 부동산입니다.

그는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어쩌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린은 대학교 캠퍼스 안뜰의 이름이야." 또는 "케임브리지의 캠 강변을 따라 펼쳐진 푸른 초원의 이름이지."

초록색. 그리고 아마 봄이 되면 누군가 "초록색은 초록색이지."라고 말할지도 몰라. 어떤 장소의 이름이지.

그리고 품질에 대한 감각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단어가 서로 다른 사물을 지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사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모호함. 혼란이 발생한다. 이처럼 언어를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방식에서 철학적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말을 이어가고, 우리는 그림 속 사실들을 스스로 파악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초록색을 질투심에 초록색으로 상상하죠.

혹은 우리는 케임브리지의 녹지를 그저 초록색으로 떠올립니다. 저는 그곳을 따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은 초록색이었죠.

아주 푸르고 울창해요. 강 바로 옆에 있어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저는 케임브리지 외곽에 있는 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휴일이면 그곳에 가서 대학교를 돌아다니곤 했죠.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 사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림 , 즉 정신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그림, 그 정신 상태는 현실의 모형입니다. 정신적 모형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에는 사물이나 물체를 나타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진 그림은 그림 속 요소들이 나타내는 사물이나 물체들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황 의 심상은 그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응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파악 해야 합니다 .

러셀의 원자적 진술, 원자적 명제는 원자적 상태에 대응하고, 한 상태의 요소들이 다른 상태의 요소들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정신적 모델, 즉 2, 1, 4, 1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림 자체가 하나 의 상태 , 하나의 사실입니다. 네, 제가 그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의 상태 입니다.

그림 자체가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림과 그림이 묘사하는 대상 사이에는 반드시 동일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림과 그림이 묘사하는 대상 사이에는 어떤 상응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머릿속 이미지는 단어로 구성될 수 있지만, 그 이미지가 가리키는 실제 상황은 단어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머릿속 이미지와 객관적인 상황 사이에는 어떤 동일성이 있을까요 ? 이해되시나요 ? 둘 다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 의 논리적 형식과 동일한 논리적인 언어 형식이 필요해요 .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사실에 대한 논리적인 그림은 생각이에요.

논리적 그림은 명제와 같습니다. 명제는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생각을 표현합니다. 네, 명제는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명제든, 원자나 분자 수준의 사실을 다루는 복잡한 명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는 러셀의 논리적 분석, 즉 논리적 원자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겐슈타인의 의미에 대한 그림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적 표상, 즉 생각은 상황에 대응하는 그림입니다. 자, 의미의 본질, 생각의 본질, 의미의 본질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의미는 단순히 지시적일 수 있습니다. 논리학에서 명사의 논리적 외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것이 지칭하고 확장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인가? 하나 또는 여러 개인가? 따라서 그는 언어의 지시적 의미, 즉 확장적 의미를 거의 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물의 상태가 경험적 대상으로 보이는 한, 이것은 경험주의적 의미 이론이 된다. 물론 그 선례는 존 스튜어트 밀의 "물질이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감각의 영구적인 가능성.

'마음'이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끊임없는 성찰의 가능성, 의미에 대한 경험주의적 이론. 데이비드 흄이 모든 사실, 진술, 흥미로운 점은 같은 단어, 즉 '사실', '사실'에 대해 제시한 이론이다. 사실이란 무엇인가? 사실적인 문제란 무엇인가? 상황이란 무엇인가? 흄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이 철학적 언어를 경험적 사실, 사실적 진술의 언어로 옮길 수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의 탐구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불태워 버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무의미한 형이상학적 헛소리를 불태워 버리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흄의 것과 같은 경험주의적 의미 이론인데, 밀의 것과 같은 경험주의 이론을 러셀의 논리적 원자론이라는 언어로 번역하고 초기 비트겐슈타인에서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험주의적 의미 이론이 엥거의 논리 실증주의에서 검증 가능성 원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의미의 검증 가능성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에이어의 책을 읽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미 읽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에이어의 『언어, 진리, 논리』의 첫 번째 장 제목은 '형이상학의 제거'입니다.

어떤 근거로요? 경험주의적 의미론이죠. 러셀과 비트겐슈타인 같은 유럽 대륙 철학자들, 그리고 밀과 데이비드 흄의 전통 덕분에 형이상학이 배제되었죠. 19세기 경험주의의 반형이상학적 흐름이 20세기 실증주의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

이해가 되시나요? 의미의 그림 이론이요? 좋습니다, 그림 후반부를 같이 살펴보죠. 기호와 상징. 아마 여러분은 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해 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미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는 기호입니다.

네, 단어는 기호입니다. 하나의 기호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단어는 상징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린'이라는 단어, 그 소리는 빌 그린을 상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제가 빌 그린이라는 이름을 지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빌 그린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 이름은 녹색을 상징 할 수 있습니다 .

감정 상태를 상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물론, 색깔을 상징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호가 여러 가지 상징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근본적인 혼란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는 괄호 안에 철학이 그런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조금 더 나아가면 심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는 마음의 개념에 관한 책에서, 언어의 논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 즉 실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언어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마음은 단순히 특정한 뇌 기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 이런 식 으로 혼란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려면 서로 다른 기호에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논리적 구문에 기반한 수화 입니다 . 러셀이 말하는 이상적인 언어죠.

네. 우리가 철학을 정확하게 하려면 기호 논리학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이런 점이 기호 논리학 분야를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403번에서 말했듯이, 철학 서적에 나오는 대부분의 명제와 질문은 거짓이 아닙니다. 단지 무의미할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가 말하는 '의미'란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녹색'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사물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의미한 언어 사용이란 경험적 지시 대상이 없는 언어 사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에서 형이상학이나 형이상학적 언어가 무의미하다고 하거나, 의미의 검증 가능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지시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험적 지시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것도 경험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명제와 질문들이 터무니없다면, 철학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외에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403이다. 철학은 언어에 대한 비판이다. 언어의 용례를 분석하여 그것들이 경험적 의미를 지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만약 사실이 있다면, 그것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적절한 경험적 과학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어떤 것의 진실을 결정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모든 의미가 경험적인 것이라면, 명제의 진실성은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철학은 말하자면 언어 논리 교환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런 복잡한 주제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라는 문의 전화를 받아 여러 학문 분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철학의 기능은 간단히 말해 논리, 즉 언어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411, 따라서 참인 명제의 총체는 자연과학 전체가 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할 때 '과학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기억하세요.

과학주의란 무엇인가? 과학적 지식만이 가치 있다는 견해이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 얻은 것만이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될 수 있고, 가치 있고 수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19세기 경험주의자들, 초기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과학적 배타주의이다.

알겠죠? 그런데 411번, 철학은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철학은 생각을 논리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논리적 명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 교리 체계가 아니라 활동입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밑줄을 긋는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더 이상 누군가의 철학을 교리 체계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헤겔의 철학을 교리 체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당신은 오히려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이 표현은 비트겐슈타인이 처음 사용했는데,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학과에서도 당신에게 "철학을 좀 해보세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라고 말하는 걸 자주 들으실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철학을 해보세요. 철학은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분석 활동입니다. 적어도 그건 확실해요.

그렇다면 그의 요점은 철학적 명제는 현실을 묘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그것을 해냅니다. 과학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통해서만 형이상학적 문제나 종교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 해야 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가 이 논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는 과학적 경험주의를 옹호하는 동시에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귀납법의 문제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균일성이 바로 문제입니다. 모든 귀납적 추론은 자연의 균일성이라는 주장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귀납의 법칙은 논리의 법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히 의미 있는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명제란 경험적 자료를 가리키는 명제입니다. 귀납의 법칙, 즉 자연의 균일성은 경험적 자료의 균일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논리 법칙이 아니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통 철학에서 귀납법의 근간이 되는 인과 법칙은 어떻습니까? 인과 법칙은 법칙이 아니라 법칙의 형식일 뿐입니다.

인과 법칙은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역학에는 최소한의 원리와 인과 법칙이 있고, 물리학에는 인과 법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과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특정한 인과 법칙들이 참여하는 공허한 형식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러한 법칙들의 논리적 구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디 보자. 조금 더 가보자. 귀납적 추론 절차에는 논리적 정당성이 없다.

이건 마치 데이비드 흄의 이론이 다시 나타난 것 같군요. 다만 심리적인 정당화일 뿐이죠. 정말 데이비드 흄의 이론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 되시죠? 네, 심리학적 근거는 우리의 기대를 형성하는 끊임없는 연관성 덕분에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적으로 확고한 믿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강제적인 인과관계는 없어요. 인과적 필연성은 없다는 거죠.

존재하는 유일한 필연성은 논리적 필연성입니다. 예를 들어 A는 A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인과적 필연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세계관 전체는 소위 자연의 법칙이 자연 현상을 설명한다는 환상에 기초하고 있다. 자연의 법칙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은 법칙 자체가 아니다.

그것들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럼 가치관은 어떤가요? 도덕적 가치관은요? 좋아요. 그가 도덕적 가치관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죠.

세상, 즉 사실의 세계, 경험적 사실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모든 일은 일어나는 대로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가 일어나는 그대로인 이유는 가치가 경험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진정한 가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영역 밖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죠? 가치는 세상과 무관한 것이어야 해요. 세상 밖에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윤리라는 명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명제란 무엇인가? 사물의 상태에 대한 진술. 사실. 경험적 사실.

그러므로 윤리에 관한 명제, 즉 윤리적 명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제는 사실보다 높은 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윤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해야 한다'라는 형태의 윤리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그런 법칙이 제시되면 누구나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윤리는 일반적인 의미의 처벌이나 보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행동의 결과에 관한 것이며, 그 결과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단순한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위 그 자체에 어떤 윤리적 보상과 처벌이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윤리적 언어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비트겐슈타인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논리 실증주의자는 윤리적 언어가 순전히 감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제에는 기록될 윤리적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의 저서에서 접하게 될 정서 주의 윤리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윤리와 미학에 관한 장을 따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 말입니다. 그는 죽음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경험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없으며, 우리의 시야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 영혼의 영원한 불멸이나 사후 생존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의도된 것이거나, 아니면 제가 살아남음으로써 풀린 어떤 수수께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은 삶 자체를 넘어서, 시공간의 모순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삶과 그 의미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문제가 사라지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이 없으면 문제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결론입니다. 철학에서 올바른 방법은 진정으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 즉 자연과학의 명제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 후에 누군가가 자신의 언어에 있는 특정 기호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실패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 명제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과학에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책 끝. 자, 제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러셀의 주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논리 실증주의에 몇 단계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몇 단계 더 가까워졌다고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존? 아니요.

네. 제 생각에 그가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의도는 삶의 의미라는 문제는 경험적으로 무의미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문제란 사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 삶의 의미가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답한다면, 삶의 의미가 삶 밖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험적인 방법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경험주의자들이 그가 제기한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접근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논리실증주의자인 루돌프 카르납과 모리츠 쉐리히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20년대 영국 과학철학 저널에서 열린 논쟁이었는데, 쉐리히는 미래 상태의 불명성에 대한 논의는 경험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르납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며, 우리가 그 이후에 경험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그때에만 그 논의가 경험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종교철학자 존 힉은 여러 사상 단계를 거쳐 지금은 완전히 다른 단계에 있지만, 한때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종교 언어의 의미를 논할 때 종말론적 검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카르납은 불명에 대한 믿음이 종말론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고, 즉 경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힉은 기독교 신앙 자체가 종말론적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에서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말했잖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정의를 확장한다면 미래의 경험도 원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미학에 관해 뭐가 하나요? 그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하나요? 네. 그 때문에 그가 미학에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반대하긴 하는데, 미학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비트겐슈타인 세미나를 듣고 미학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 있나요? 당신도 미학에 대해 관심을 가져봤죠? 그가 미학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최근에 그의 단편들을 모은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미학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읽어보지 않았습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초기 저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후기 저서에서 일상적인 언어를 좀 더 비과학적인 용어로 다룰 때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네. 그럼 그의 후기 작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초기 저작에서 했던 것에 대해 나중에 다시 생각하게 된다. 『논리철학논고』는 1921년에 출판되었다. 1929년,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떠나 철학 공부를 중단했다.

그는 1940년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철학적 탐구』를 출판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의미에 대한 그림 이론은 명확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발언은 검증 가능성 이론에 대한 자기 참조성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명제가 검증 가능하려면 경험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하는데, 의미에 대한 검증 가능성 이론은 경험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논리실증주의의 몰락을 초래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또한 러셀이 꿈꿨던, 나눌 수 없는 사고의 단위인 원자 명제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자 명제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언어라는 개념은 너무 인위적입니다. 그는 논리적 언어나 기호적 언어 같은 것들은 마치 군인들이 열병식에서 하는 훈련과 같다고 말합니다. 논리적 규율을 가르치는 데는 좋지만, 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모든 의미 있는 담론을 과학적 담론으로 한정하려는 과학주의를 버리고 언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 다시 말해, 과학적 유형의 언어는 단지 하나의 기능일 뿐인 다양한 언어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 제 생각에 라이언은 미학적 언어도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